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경한



조선시대에는 반역이나 큰 죄를 저지르면 3족을 멸하였고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후손들의 인생이 제약된 경우가 허다하였다.

한 때 갑오개혁 후 흥분 14조에서 연좌제를 폐지하기도 하였으나 군사독재 시절까지도 선조의 부역행위로 인하여 공직 진출의 제한이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를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비로소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게 되었다.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모 등 가까운 친족의 행위로 자손의 인생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크게 잘못한 것이다.

한편 훌륭한 조상들의 업적이나 선조의 후광으로 자손들이 능력 이상의 평가나 대우를 받은 경우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능력이나 인성이 좋은 자손이 자신의 능력에 선조의 후광이 덧붙여진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이나 인품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조상의 후광이나 권위에 의존하여 과대포장되거나 특세하는 것이다. 더더욱 잘못된 것은 부모나, 형제, 남편 등이 커다란

도덕적 연좌제는 살아 있다

잘못을 저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인품은 별 볼일 없는 그들의 자식, 아내, 형제들이 도덕적으로 함께 반성하기는커녕 연줄이나 돈, 권력을 이용하거나 편승하여 그 권력이나 지위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이다.

최근 내 고향 화순에서는 이전 군수의 불법선거로 인하여 군수들이 구속되고 치른 재·보선에서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당선되었고, 얼마 전 K군에서는 아내가, S군에선 아들이 군수 재선거에서 낙선하

였다. 이들이 평소 군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고 군의 수장이 되려고 준비하거나 노력해 온 사람도 아니고 군정을 이끌어 가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 증명이다.

또한 이들은 남편, 형,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는 한심한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화순군의 뜻있는 군민들이나 시민단체가 군수는 부부, 형제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강력히 반대운동을 펼쳐 유력한 정당의 공천은 막았지만 결국 동생이 당선되었다.

이들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수준도 문제는 있다. 또한 유달리 전남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도민의 성향과 관련이 있을까.

재·보선에서 당선되거나 출마한 아내, 동생의 능력과 인품이 뛰어나고 평소 해당 군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고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선거가 정당적으로 치러졌다면 그들이라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나 위의 경우 모두 남편이나 형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구속되어 당선이 무효되고 군정이

마비되었으며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어 군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였다.

능력 있고 준비가 된 이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다면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남편, 형이 불법을 저질러 다시 치르게 된 바로 그 선거에 출마한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행위를 저행한 군수였던 남편, 형이 재·보선에 소요된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볼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 정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과연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 간다. 그의 부친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였고 의문사를 당하게 한 독재자가 아니었는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자식으로서 마땅히 용서를 빌어야 어떻게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살인범 유영철의 아버지가 그 동네의 동장이나 반장을 한다고 할 때 아무 죄는 없다지만 그 지역 동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직도 우리 정서상 도덕적 연좌제는 살아 있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비엔날레 국제경쟁력 강화해야

‘열풍변주곡’을 주제로 한 제 6회 광주비엔날레가 6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막을 내렸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객객 수가 예상인원 50만여명보다 많은 70만명을 넘었고 비엔날레 총수익도 46억원을 기록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성’을 강조하며 아시아의 눈으로 세계 현대미술을 재조명, 아시아 미술의 역동성과 위상을 확인한 계기였다. 아시아 권역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작품 전시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미술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이다. 또 주제중심의 참여작가 선정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새로운 시도였다. 특히 제3섹터 시민프로그램인 ‘광주별곡’은 관람객에 머물러온 시민들을 ‘미술생산자’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광주비엔날레는 슬한 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 관람객이 3만명에 불과, ‘인방잔치’에

그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해외홍보마케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제의 모호성과 ‘창작작품’의 부족, 획일적 전시 구성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비엔날레가 시민의 축제로 치러지지 못한 점이나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점도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다. 광주비엔날레는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부산비엔날레가 도전장을 냈고 싱가포르와 상하이비엔날레도 아시아 대표 미술축제를 위한 것이다. 또 주제중심의 참여작가 선정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새로운 시도였다. 특히 제3섹터 시민프로그램인 ‘광주별곡’은 관람객에 머물러온 시민들을 ‘미술생산자’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와 비엔날레재단 등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시아 선두주자인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동산 정책,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번 주 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8번째다. 5~6개월에 한번 꼴로 대형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잦은 대책발표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집값은 급등한 반면 지방 건설경기는 빈사상태에 빠져들었으며, 이로 인해 집값은 서민과 지방주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만 깊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일관성 결여와 맹목적 처방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기간의 효과에 급급해 수요억제 대책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 급등이 ‘부동산 세력의 투기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해 ‘세금 폭탄’ 등 무차별인 규제를 쏟아내 시장과 실수요자의 반발만 샀다. 잘못된 진단과 대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오히려 급등한 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졌고, 지방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청와대는 “지금 집을 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식의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가 하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기관, 언론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난 정책실패에 대해 진술한 사과 없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적인 수요층정을 정확히 한 후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제를 이념이나 코드로 풀려고 해서 시장 혼란과 불신만 키운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無等鼓

조지 W.부시 정권 들어 미국 외교정책을 좌우하던 네오콘(Neocon)이 몰락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힘을 앞세운 패권주의 외교를 펼치다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실질적 주역인 네오콘은 비판의 표적으로 전락했다.

부시 정권에서 5년 10개월 동안 ‘역대 최강의 국방장관’으로 군림했던 도널드 럼즈펠드가 첫 타깃이 됐다. 럼즈펠드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에 의해 픽업됐다. 가 포드 정권 때 43세의 나이로 국방장관에 오른 미국 정가 보수파의 중심 인물이다. 럼즈펠드 다음은 존 볼턴 유엔대사. 볼턴은 네오콘의 거두 닉슨 부통령의 사람이자, 대북 강경책을 주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그의 성향을 문제삼아 유엔대사 지명에 반대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보이노비치는 볼턴을 가리켜 ‘kiss up, kick down’(윗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랫사람에게 고압하는) 형의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볼턴이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자 ‘휴회 중 임명’이라는 편법을 통해 유엔 대사로 발령하는 무리까지 불사했다. 이후 볼턴은 북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거치면서 맹활약(?) 했다. 그는 오는 1월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대사직을 떠나야 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그를 인준할 도해 온 인물이다. 내놓고 말은 못했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 그가 국무부 군축차관 자리를 떠날 때 가슴을 쓸어내렸다. 볼 같은 성격에 과격함 언동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았지만 부시 정권의 지향전과는 딱 떨어지는 사람이다.

네오콘의 퇴조



미국에서도 볼턴의 인기는 별로다. /오승중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기고

김중채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참으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난 1990년 광주일보사와 전남도의회, 한글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광주·전남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가 개교 15주년을 맞은 것이다.

기념식장에는 우리 동포 및 현지인, 재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들의 고국사랑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뒤섞여 눈물범벅의 감격이 가득했다.

생각해보면 15년 전 중앙아시아 한인들에게 한글학교를 세워주는 뜻깊은 운동에 국가가 아닌 지방의 언론사와 지방의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던

지도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풍토다.

도의회 대표단이 오지인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이유는 명료하다. 구소련 15개 연방에는 우리 동포 약 60만명이 살고 있으며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는 절반인 약 30만명이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세종한글학교는 15년 동안 약 3천 300명의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했다. 타슈켄트의 한 일류기업의 경우 직원의 70%가 세종한글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우연이 아니다. 세종한글학교는 세계 교민사회로부터 전세계 한글학교가운데 질·양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도의회 우즈베크 방문 비난 받아선 안된다

것은 하나의 감동이었다. 그때 심었던 소중함의 묘미가 이제 우즈베크 한인들의 조국혼을 일깨우는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다.

때문에 현지 교장과 교민들은 대한민국 정부도, 국회도 아닌 전라남도도의회 의원들을 간곡하게 초청했고 이에 응한 전라남도도의회장동 10여명의 도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방문단은 기념식은 물론 한국대사관·교민회·동포 가정·재래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교민 초청만찬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한인과의 2~3세의 삶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심어 주는 등 모두가 지방외교사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방문단이 귀국하자마자 접한 일부 단체로부터의 비난과 우즈베크 방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허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가 비난의 대상이 돼오곤 한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방문같은 뜻깊은 여행마

그곳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가. 일제의 강압을 피해, 그리고 가난을 벗어내기 위해 위해 남부여대(男女女)라고 할날 같은 작품이 휘몰아치는 시베리아에 정착하여 때로는 독립군을 돕고, 때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직접 싸우던 한인들, 그러나 갑자기 국경이 막히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한인 1세대의 손자 손녀들 아닌가.

필자는 타슈켄트 한글학교 15주년 기념식장에서 이 학교에 초석을 놓아준 전남도의회대표단을 중심으로 환대하던 현지관계자들과, 또한 눈시울을 적시며 함께 감격을 나누던 도의회 방문단의 모습에서 진한 동포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방문단 도의원 한명한명이 동포들의 삶과 고난의 역사를 알아보고자 동분서주하면서 자료나라도 더 일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존경의 엄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구소련 한글학교 설립추진회장>

출근길 버스기사 조그만 배려에 하루 기분 뿌듯

시내버스가 차선을 바꿔 정류장을 막 빠져나가려 했을 때,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버스를 잡기 위해 할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대체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귀찮거나 버스 배차시간을 대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수다. 하지만 이 운전기사는 가던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 채 남자 승객을 태웠다. 그리고 “뛰어오시느라 속차시지요. 고생하셨습시다”라며 웃는 것 아닌가.

버스에 탄 남자는 연신 고맙다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차례 하며 기분좋은 표정

이었다. 버스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남자는 운전사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가 즐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배려와 친절 덕분에 그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아침에 만난 친절할 운전사 덕분에 그날 하루는 보람했고, 퇴근길에 다시 그 버스를 탔으면 하는 기대마저 생겼다.

비록 그 운전사를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운전사가 몸소 보여준 친절을 주위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이수정·광주시 광산구 요기동

법조칼럼

이상갑



시민들 대부분은 법정에 직접 가서 실제 재판 모습을 보고 나면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아온 재판과는 많이 다르네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재판 역시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시민배심원이 참여하고 법정 안에서 치열한 구두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델로 꾸민 사건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적용한 모의재판을 했다.

재판에 앞서 배심원 선정절차가 있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로 선발된 9명을 상대로 이들이 배심원의

응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경험, 직업, 나이, 성별 등에 따라 의외로 개인별 가치관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배심원단 구성과정은 검사와 변호인이 기피권을 행사해 상대방 쪽으로 치우치는 배심원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때문이다.

배심원의 평의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와 달리 논리적인 토론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였고, 연고주의와 운정주의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 또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이번 모의재판을 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3

차례 리허설을 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평의를 하였는데, 결과는 항상 동일했다.

뿐만 아니라 배심원단의 평결은 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의 결론과도 완전히 일치했다.

배심원들이 평의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의 강점과 약점, 증거의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 변호사는 모두 놀랄 뿐이었다. 일각에서 막연하게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문화가 훨씬 성숙해 있었던 것이다.

법률인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5년간의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한 다음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변호사>

‘친구’라는 단어 대신 옛말 ‘동무’ 사용 어떨까

우리 국민들의 한글 사랑 의식이 날로 넓어지는 것 같아 기쁘다.

얼마전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 아이가 학원에 갔다 와서는 “아빠, 학원에서 친구한테 장난으로 ‘동무’라고 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라며 난감해 했다.

아이 말로는 ‘동무’라는 말은 큰 무리가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물론 당연히 틀린데가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분단 이후부터 북한에서 널리 쓴다는 이유로 금기시 된 것 같다. ‘동무’는

‘친구의 옛말’일뿐이다.

‘동무’라는 말은 가끔 ‘동무생각’이나 ‘가고파’에도 나오는데, 결코 지나간 옛말이 아니다. 게다가 ‘친구’보다 훨씬 정감있고 입에 붙는다. 진짜 우리말인 ‘동무’가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사라지기 전에 살려내어서 우리 겨레가 두루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껏 매스컴에서 ‘동무’를 살리자는 주장을 보지 못했다.

광주일보에서라도 앞장서서 ‘동무’를 살려주기 바란다. ▲민경호·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동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